기생충 때문에…, 구충제 꼭 먹어야 하나?

■ 글/정영진〈서울보훈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 그림/이우정

어머니가 집 마당에 배추를 쌓아두고 김장을 담그면 그게 겨울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다. 최근에는 김치도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되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으로 외국에까지 수출하는 식품산업으로까지 형성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김치에 기생충 알이 들어있다는 식의약품안전청 발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충격이 단지 기생충이라는 혐오스러운 단어 때문에 과장된 일면도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기생충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구충제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안내하고자 한다.

● 기생충이란 무엇인가요?

대개 기생충이라고 하면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았던, 인분을 비료로 사용한 채소류 등을 통해 전염되는 회충이나 요충, 편충 등을 떠올리게 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생충이라는 것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무척추 동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생충 가운데 인체에 감염돼 건강상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기생충 질환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많은 기생충 중에서 실제로 인체에 감염돼 건강상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생충을 들자면,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회충, 편충, 요충과 같은 기생충이 큰 문제가 되었지만 전국적인 홍보와 강제적인 대변검사 등을 통해서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다. 이번에 일부 김치에서 발견된 기생충 알이 대부분 이런 종류이다. 또한, 민물 생선회를 먹은 후에 발생하는 간디스토마도 1980년대까지 드물지 않게 있었지만, 이 역시 최근에는 거의 보기 어렵다.

최근 보건학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모기를 통해서 혈액 내에 기생하게 되는 말라리아이며, 이에 관한 대책들이 실행중이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기생충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인체 기생충의 대부분이 입을 통해 감염되는데 인체 감염성이 있는 회충 · 요충 · 편충 등의 충란(자충 포장란)은 인체의 입을 통해 감염된다. 기생충은 유충단계에서 자충 포장란이라는 단계로 성숙해야만 인체에 감염되었을 때 성충으로 성숙할 수 있다.

이번에 김치에서 발견된 미성숙된 유충단계에서는 인체에 머물지 않고 대변으로 배설되게 된다. 그리고 십이지장충 · 분선충의 유충 · 주혈흡충의 유미유충 등은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침입하고, 말라리아 · 사상충 · 트리파노조마 등의 기생충은 모기나, 흡혈성 파리 등의 매개 곤충에 의해 인체에 주입돼 성충으로 자라게 된다.

● 기생충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기생충에 감염되면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감염된 기생충의 기생부위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생충(과거에 많았던

회충 · 요충 · 편충 등)은 소화관 즉 소장이나 대장 등에 기생하며, 소화불량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위장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증상만을 가지고 기생충 질환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대변에서 기생충 알이나 성충을 발견하는 것이 진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의 김치에서 발견된 기생충 알과는 관계없지만, 간디스토마의 경우는 간에서 기생하며 간 및 담도에 손상을 주어 황달이나 피로감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말라리아 병원충은 혈액 내에 기생하며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지만 주기적인 고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 기생충에 감염되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기생충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은 차이가 있다. 기생충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충제나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생충을 직접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김치에서 발견된 기생충 알의 경우에는 인체에서 성충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하튼 이런 종류의 기생충 감염에 있어서 구충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구충제의 종류와 복용법

감염된 기생충의 종류에 따라 구충제의 종류 및 사용기간, 용량 등의 차이가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구충제의 종류는 알벤다졸 400mg, 프라지콴텔 600mg, 프루벤다졸 500mg, 메벤다졸 100mg 등이다.

이 중에서 프라지콴텔의 경우는 간디스토마·폐디스토마·주혈흡충 등과 같은 흡충류 감염 및 유구조충·무구조충·유구낭미조충 등과 같은 조충류의 감염에 효과적인 약물이다.

프라지콴텔을 제외한 알벤다졸 · 프루벤다졸 · 메벤다졸 등이 회충 · 요충 · 편충 등과 같은 선충류의 감염에 효과적인 약물로서 현재 김치에서 검출된 기생충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약물의 경우 회충 · 요충 · 편충 등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용량 및 복용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임의로 구충제를 복용하기보다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구충제 사용시 주의할 점

첫째, 가족 모두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장내 기생충의 감염 경로를 고려해 볼 때 식사를 함께 하는 가족 단위로 감염되기 때문에 구충제를 복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가족 단위로 치료받아야 하며 그래야만 재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

둘째, 임신부 및 수유 중인 여성, 2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구충제는 대개의 경우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몇 가지 복용 금기 사항이 있다. 공통적인 복용 금기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임신부 및 수유 중인 여성, 2세 미만의 소아이다.

셋째, 기생충 감염에 대한 예방적인 구충제 사용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구충제는 성충단계의 기생충에 효과적이므로 현재 자충 포장란이 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충제의 사용은 의미가 없다. 또한 약의 효과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복용한다고 해서 추후의 기생충 감염을 예방한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과거에 기생충 감염률이 80% 이상을 유지할 당시에는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이 필요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회충 감염률은 0.05%, 편충은 0.28% 정도여서 모든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간략하게 기생충 질환과 구충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주변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무수히 많은 세균과 먼지로 둘러 쌓여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기생충이라는 단어의 혐오스러움과 현미경 사진에서 보여지는 징그러움을 걷어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